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교우 : 오연옥 성도(호산나 목장)
2.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늘문의 만나> 5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목상용이나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목장모임 교재도 <하늘문의 만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오늘 간식은 아가페 목장(김경미 권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5/8) 간식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4. 5월 29일(주일)에 여선교회 주관으로 물품바자회를 엽니다. 생활용품, 의류(세탁 후 기부) 등 교우들의 가정에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는 물품은 교육관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5. 5월 월삭새벽기도회를 5월 2일(월)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담임 목사 동정 : 담임 목사님은 5월 2일(월)~3일(화)까지 순서노회 참관 및 196회기 1차 임원회의 참석차 전남 여수 녹동중앙교회를 방문합니다. 화요일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예배기도(2부)	신동기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점심식사 No)	아가페 목장(김경미 권사)	담임 목사 가정	엘리 목장(신경미 권사)	호산나 목장(장영자 권사)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2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오순옥 집사, 김경미 권사, 조남희 집사, 김학성 집사 등)
3. 새롭게 세워진 향촌직(떡장로, 안수집사·권사) 직분자들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협동목사 : 김진희 ■ 전도사 : 박일선, 김진규, 구은혜
 ■ 시무장로 : 유중열 ■ 협동장로 : 신태식, 김윤식, 서동운, 윤형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96번(어린이주일) 다같이
*경배찬송	43(통 5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570장(통 453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신도자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마 18:1-6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인도자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어린이와 같은 마음'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449장(통 377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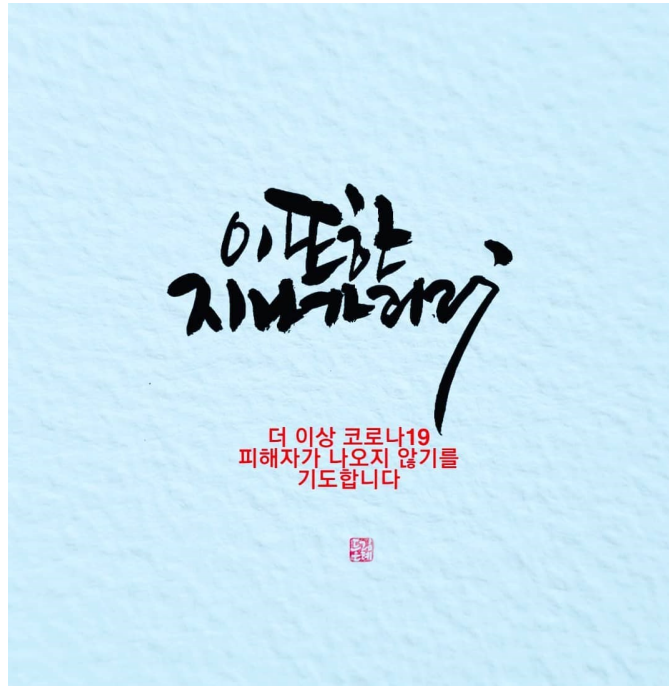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5:3-12 '애통하는 이의 복'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

한 소년이 모형 배를 만들어 시냇가에 띄우며 놀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쏟은 자신만의 작품이었기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던 소년은 쇼윈도에 있는 자신의 잃어버린 배를 발견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며 자신의 것이니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이제는 자기 것이 되었으니 가져가려면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낙심하지 않고 배를 다시 찾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참 후, 값을 치른 소년이 배를 어루만지며 연신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두 번이나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고, 다시 값을 치르고 샀으니 너는 두 번이나 내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뒤로 죄와 욕심의 종이 되어 잃어버린 물건처럼 떠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또 한 번 사셨기에 우리는 두 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기를 하냐요. 칭찬을 해 주냐요?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는 아무런 보상도,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높이 올려 주시고 영광 중에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리는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부터 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